

길을 묻는 이에게



대행스님

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. 불
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
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
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
십시오.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
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.
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
드립니다. <글책임: 편집자>

●보낼곳: 우 110-170
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-33
현대불교신문사
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
●FAX: (02)737-0697/8
●PC통신: 인터넷부다피아
http://www.buddhapia.com/mem/ha
nmaum

법공양 페이지

믿음 있어야 물러서지 않고 놓을수 있어

한 마음에 눈빛이 서로를 왕래할 수
있는 자리가 되어서 참 기쁩니다.
옛것처럼 텔레비전을 보니, 요즘
뿐만은 아니겠지만 장애인들이 많이 태
어나고 하던데 장애인들이 많이 태어
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
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.

항상 말씀드리기를, 모든 건 내 내면
용광로에 맡겨보라 했습니다. 왜냐하면
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
적으로 입력이 됐다가 현실에 나오기 때
문입니다. 그래서 제 자리에서 나온 것을
제자리에다 돌려 놓으면 바로 과거에 입
력된 게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. 과거에
입력된 그 자체가 팔자운명대로 그대로
나온다면 심중팔구 그런 문제들이 생기
게 될 겁니다. 그것뿐만 아니겠지만 말입
니다. 그러나 그것도 마음 장난입니다.
이제껏 살아온 관습에 의해서 모든 것이
마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생활 자체를 마
음의 용광로에 되돌려 놓는다면 자동
적으로 생각이 돼서 나가는 거는 정한
이치입니다. 인과의 유전성이란가 업
보, 세균성할 것 없이 말입니다.

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되돌려
놔야만이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, 앞서
의 입력된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현실
에 생각하는 그대로 새롭게 나오는 것입
니다. 그러나 의학적으로 볼 때에도 그렇
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두가 어디서
잘못됐느냐 하고들 아담들이지만은 그
것은 바로 한 군데서, 즉 말하자면 가던 길
에서 얼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허우적거
려도 일어설 수가 없다. 단 얼어졌으면
그 땅을 짚고 일어날 수 있어야만 된다
는 그런 뜻에서 젊은 사람들이나 또 자
라가는 재력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
도록 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이것은
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

그리고 안타까운 일은 외국으로도 장
애인들이 많이 입양되고 또 국내에서도
모두 키울 수가 없어서 애를 쓰고 그러
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잘
못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것을 알아야만
이 그렇게 되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을
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.

앞으로 창창하게 살아나갈 여러분도
계시겠지만 연세가 들어서 노인네라 할
지라도 지금 모습이 노인네지 마음이 노
인네가 아닙니다. 남녀노소를 막론하고
마음은 그대로 마음인 것입니다. 그래서
웃을 벗고 또 다시 나올 때 그러한 문
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여하간에 우리가

나는 업이 많다
고 많다
나는 죄가 있다
생각을 말고
모든 것을 용광로에
다 놓으십시오

세상에 나왔으면 이름 그대로 만물의 영
장이라는 소리를 실천해야 합니다. 우리
가 그런 실천이 없이 이론으로만 알고,
학살로만 알고, 지식으로만 알아서 무슨
공자, 맹자 소리나 해서 되는 게 아닙니
다. 팔만대장경을 위로 꿰고 아래로 꿰다
해도 한번의 실천만은 못한 것입니다. 부
처님께서 실천공행하는 것을 가르치시
말을 배우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. 우리
가 절대적으로 이 도리를 알아왔기에
그냥 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.

왜인줄 아십니까. 자기가 뼈와 살을 빌
어서 난 부모의 그 은혜를 백분지 일이
나. 천분지 일이라도 갚으려면 이 도리를
알아야만 합니다. 한생각 잘못해서 장애
인이 나온다 한다면 세상에 그것은 그
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식구들도
전부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모
두 정신장애가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
그 장애인 부모가 기르다가 부모가 죽
으면 누가 말입니까.

어떤 사람들은 장애인을 낳으면 내다
버린다고 합니다. 버리면 그 모습만 갖다
버렸을 뿐이지 그 인과의 유전은 절대로
버려지지 않습니다. 그 대(代)에 그렇
게 됐으면 또 그 다음 대에 나오고 그
대가 아니면 6대, 7대 이렇게 해서, 빨리
나오고 더디 나올 뿐이지 근본문제가 해
결되는 것은 아닙니다.

여기도 그런 아이들이 더러 옵니다만
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. 그 원인이 어디
있느냐면 바로 과거에 인과로서 유전이
된 그 자체가 녹아지기 때문입니다. 이
모두를 생각할 때 하나하나가 장애인을
낳는 것뿐만 아니라, 그러기에 태교가 중
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. 하지만 모두 내

마음 먹기에 달렸다. 애고도 내 마음 먹
기에 달렸고 병고도 내 마음먹기에 달렸
다 이겁니다. 이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
한두 건입니까.

찰나찰나 나투면서 용도가 바뀌면서
다가오는 그 모두가 어떻게 타파를 하고
어떻게 허물을 하시겠습니까. 그러니까
이것 저것 나눌 게 아니라, 이것은 못하고
저것은 할 수 있다고 나눌 게 아니라
모든 것을 불바위에다 놓으면 그냥 타버
리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제시하
는 것입니다.

불바위라고 하니가 잘 알아 듣지 못하
는 것 같아서 속명통, 즉 컴퓨터라고 했
습니다. 자동적인 컴퓨터, 잘 아시겠죠.
모든 것이 거기에 입력돼서 지금 현실에
나오는 것이, 좋든지 나쁘든지 다 입력돼
서 나오는 것이니까 나오는 그 자리에다
다시 돌려놓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만 우
리가 인생의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것입
니다. 여러분한테 수없이 그런 얘기를 반
복했습니다만 백번을 반복해도 그것이
남득이 되지 않고 가슴에 와 닿지 않는
사람이 있습니다. 딴 사람은 당는데 왜

사무치도록 절실하게 믿어야 물맛 보게돼 팔만대장경 통달해도 한번 실천만 못해

자기는 닿지 않을까? 그것이 바로 과거
의 업장이 터져서입니다. 그러니 그 업
장체가 있다는 생각도 거기다가 놔 버리
고 아주 맑게 물리가 타질 수 있도록 더
욱 노력해야 하겠죠.

“나 는 업이 많고 죄가 많아서 안
될 거야, 나는 힘이 없어.” 이
런 마음조차도 거기다가 되돌
려 놓는 것입니다.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
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, 지수화풍으로
이루어진 몸으로서 지수화풍을 먹고 살
며, 지수화풍 속에서 광력이나 전력, 자
력, 통신력에 의해서 우리가 전부 살고
있으니 말입니다. 그러나 그뿐입니까. 우
리가 공기 속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 어
디 있겠습니까. 우리는 공기중에서
살고 있습니다. 물고기가 물 속에서 살
듯이 말입니다. 물 밖을 벗어나면 고기가
죽듯이 사람이 역시 내면세계에서 벗어
나면 고기가 물 바깥에 나온 거나 진배
없는 것입니다. 그러니 죽겠네 살겠네 하



그림 · 최주현

고 야단법석이 나는 거죠. 물이 적으면
적은 대로 또 물이 아주 없으면 없는
대로 죽는 것이니 사람이거나 고기나 뭐가
다르겠습니까.

살아가는 방도에 대해서는 마음들이
자기를 이끌어가며 자제하면서 모든 것
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.
일단 생명을 유지하니 감사해야 하고,
먹지 못하면 죽으니 감사해야 하고,
먹으려면 불이 있어야 하니 감사하고, 땅
은 짙어지고 심어 먹어야 하니 감사하
는 것이죠. 독불장군 없이 서로 공생하고
공용하고 공식하니 감사해야 하고, 부
모가 길러줬으니 감사해야 하고, 모두가
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모두 한 데
합친 자체를 이롭게 해서 부처라고 한 것입
니다.

부처님 따로 있고 생활 따로 있는 게
아닙니다. 종교가 그대로 생활입니다. 도
도 생활입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데 어
떤 것을 나누어서 이것이 부처님법이고

이것은 부처님법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?
자식이나 남편을 돌보지 않고 시간
맞춰 아침에 열물을 해야만 신상이 풀
린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열물을
할 때 이 지구가 돌아가고 열물을 안할
때는 안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. 열주를
목에 걸고 손에 들고만 다녔지 열주가
될 사이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간
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. 열주를 돌
렸다 놔다, 돌렸다 놔다 한다면 그것은 시공이
끊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열주를 돌
리면 우리가 생활할 때, 나투고 한 발
달고 한 발 들고 하는 것이 그대로 열주
돌리는 겁니다. 우리 생활 그 자체가 그
대로 진리인 깨달음 그것이 도이며, 그
것이 참선이며, 모든 것에 어긋나지 않는
여려웁니다. 그런데 생활을 놔놓고 불
당에 가야만 부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
는 여러분도 계시는 것입니다. 그러나 그
게 아닙니다.
사대 성인들이 이런 말을 했죠. 너부터

알라구요. 네가 태초요, 네가 있으니 상
대성 이 자체가 생긴 것이다. 세상이 별
어진 것도 너로 인해서 벌어졌다 라는
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. 여러분 각자 한
분 한 분이 인계시다면 모두가 없는 것
입니다. 그 뜻을 잘 아셔야 될 겁니다.
영원한 자체를 알려면 너무나 알아 영
원한 이 길을 상세히 아실 겁니다. 이 길
이라 함은 시발점과 종점이 풀이 아닌
깨달음 그대로 여여해서 여려라고 한 것
입니다.

늘은 벽을 치면 붓장이 울리도록,
오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업이 많다
고 생각하지도 말고, 고가 많다고
생각하지도 말고, 나는 죄가 있어서 이렇
다는 생각도 말고 모든 것을 용광로에다
가 놓듯이 다 놓으십시오. 그러면 금은
금대로 생각이 돼서 나갈 것이고, 은은
은대로 생각이 돼서 나갈 것이고, 것이
로 자기가 짓는 대로 그것이 생각이 돼
서 나갈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
는 것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나온 자리
에다 되돌려 놓는 공부입니다. 그것이 바
로 금인 것입니다. 그러면 아만하고 질문
을 받겠습니다. 오늘은 질문을 많이 받기
위해서 잠깐 동안만 했습니다.

항상 허리·다리아파 고통
문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. 자주
는 못 듣지만 기회 나는 대로 큰스
님들의 법문을 통해, 나의 전생을 알리면
현세의 나를 볼 것이며 내세의 나를 보
려면 현세의 나를 보라는 말씀을 듣고
합니다. 그런데 저는 항상 신병(身病),
그러니까 허리, 다리가 아파서 고통을 겪
고 있으면서 전생에 제가 어떤 업으로
이러한 고통을 겪는지 해결이 안되어 스
님께 여쭙든 그렇다면 내세에 또 다시
이런 고통을 맞이 않으려면 어떻게 마음
을 비워야 하는지요.

공과 색이 풀이 아닌 깨달음에 병
불을 지리도 없고 업보가 불을 지리
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애고 불을 지리도
없습니다. 모두가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
가는 깨달음이라 하고 <반야심경>에도 있
습니다. 그러듯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관
습에 의해서 마음으로 '나는 이렇게 병이
있다'는 생각을 하고, 또는 나는 업보가
있다. 없다 하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
니다. 그러니까 병이 있다 없다 모두 놓
고 '네 몸뚱이 내(주인공)가 건강하게 해
서 심부름하게끔 끌고가려구나' 하면 됩니
다. 몸과 정신과, 이 마음 내는 것과 법이
풀이 아닌 깨달음입니다. 그것이 따로따로
있는 게 아닙니다. 부처와 법신과 화신이
풀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서
나오는 것 한 군데다 보이자 그렇지 않은
면 안되는 깨달음입니다.

유마힐거사가 문수보살이 병문안을 왔
을 때, "나는 중생의 병이 다 나아가 내

16면으로 계속

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년·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
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

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.
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

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년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
의뢰할 수 있습니다.

생활 속의 불교 (181)

재화를 쓰는 사람과 쓰이는 사람의 차이.

"재산을 쓰는 사람이 되어서. 재산에
쓰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. 그런
사람에게는 재산이 곧 집이요 온갖 풍
파의 원인이 된다. 그러나 쓰는 사람에
게는 재산이 마치 잘 기른 가축과 같
아 자꾸 새끼를 치게 된다.

재화를 움켜쥐려는 마음의 무게만큼
도의 마음은 반대로 적어진다.
영예를 따르는 발걸음이 바쁘면 바쁜
만큼 도의 마음은 멀어지게 된다.
가는 것 붙잡지 않고 오는 것 막지
않으며 지혜롭게 동글게 살아야 한다.

나는 다만 재화의 관리자일 뿐이라고
바르게 안다면 재화의 풍족함을 자랑
삼지 않을 것이고 움켜쥐려는 마음도
쉬게 될 것이다.
가령 거금이 생겼는데도 그 돈은 언
제나 들고 나는 것이니 내 것이 아니
라 내가 관리할 뿐이라고 생각하라.
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
니고 재산을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.
다만 집착하지 않고, 매달리려는 마
음을 쉬라는 것이다.

일단 호수로 흘러 들어온 물이 흘러
나가지 못하게 되면 썩게 마련이다.
또 배불리 먹고 나면 배설해야만 산
다. 모든 소유는 이와 같다.

재물을 흐르는 강물처럼 생각하라.
지금 내가 그것과 마주했다해도 그
것은 어느 사이엔가 흘러가 버리고 만다.
그리고 흘러야만 한다. 그러므로 흐
르게 내버려 두어라. 흐름을 막으려 하
지 말라. 막아서면 뻘썩린다.

이 우주의 법리는 잠시도 멈추지 않
는다. 단 한순간이라도 고정됨이 없다.
소유도 그와 같이 끊임없이 흐른다.
흐르고 다시 흘러 온다."

여름엔 시원한 것이 좋고 겨울엔
따뜻한 것이 좋다. 자연스러움이다. 여
름에 시원한게 좋았다고 겨울까지 그
것을 고집하는 사람은 없다. 한때 기쁨
을 선사하는 것 같았던 대상이라도 항
상 좋은 것은 아니다.

배 불리 먹고 배설하지 않으면 죽
는다. 먹음만큼 먹고 적당히 배설해야



만 건강하게 살 수 있다. 소유도 그와
같다.
집착하면 체중이 생기고 체중이 오래
가면 탈이 난다. 고통이 찾아온다.

우리는 재화를 잡으려고만 하지
않은 것을 놓으려 하지 않는다. 온 힘
을 기울여 뒤쫓는다. 때로는 인생의 모
든 것을 내걸고 집착한다.
그 모습이 때로는 불 빛에 이끌리는
날벌레와 같다. 제 몸이 타버리고 말
줄을 모르고 덩벼드는 형상이 똑같다.
그 모습이 때로는 미끼에 유혹 당하
는 물고기와 같다. 낚시 바늘에 걸려
목숨을 잃게 되는 줄 모르고 덩벼드는
형상이 똑 같다.

삶은 흐름이다. 흐름은 자연스러움
수록 좋다. 여법한 것이다. 그러기에 가
는 인연 잡지 말고 오는 인연 막지 말
라고 한다.
돈을 벌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 자연
스러움이다.
권력이나 명예를 마다하지 않되 그
것이 인생의 목표이기도 한 양 붙잡고
매달리지 않는 게 자연스러움이다.

자연스러움엔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.
애착이 고통이지 흐름은 고통이 아니
다.
여름엔 시원한 게 좋고 겨울엔 따듯
한 게 좋듯이 그렇게 오고 감에 집착
하지 않고 순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흐름은 막는다고 제어되지 않는다.
막으면 넘치고 터진다. 때로는 썩는다.
댐의 물도 가두기만 해서 조절이
되지 않는다. 한편에서 적당히 방류를
해야 새 구실을 하게 된다.

흐름을 따르는 삶은 오히려 주체적
이다. 내가 대상을 부릴 때 내가 주인
일 수 있지 내가 대상의 부림을 당할
때를 주인답다고 할 수 없다. 비록 내
손에 쥔 것이라도 애착을 없애 버릴 수
없다면 나는 그것의 노예일 뿐이다.
재화에 쓰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쓰
는 사람이 되자. 그것이 자연스러움
이요, 자연스러움은 곧 도에 이르는 길이
된다. 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
렇게 생활 속에 있다.

협찬: 이동주